

# “오직 하나의 성품이 있을 뿐, 얻으면 깨달음이라”

## <17> '지관통례(止觀統例)'의 저자 양숙(梁肅) 거사

당조(唐朝)의 불교는 흔히 '종파불교'로서 개관한다. 당대에 종파불교가 고도로 발전해 삼론·천태·화엄종 등의 전통적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에서 선종과 염불종, 밀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파가 출현해 명멸했기 때문이다. 종파의 출현과 흥성은 각 종파의 교의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종파의 출현은 또한 각 종파 교의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게 했고, 나아가 한 종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불교를 통합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제종의 비교는 다시 중국 고유 유·도 양교에까지 이르러 삼교비교론이 출현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불교적으로는 '제종일치(諸宗一致)'의 경향이 출현했고, 유·도 양교에서는 '삼교일치(三教一致)'의 기치를 발현시켰다.

중당(中唐) 시기에 화엄종의 규봉종밀(圭峯宗密) 대사는 '제종일치'와 '삼교일치'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전에 유가(儒家)에서 불교 심성(心性)에 대한 이론들을 흡수해

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유는 당시 불교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유학자였으나, 양숙이나 유종원 등은 철저히 불교를 신앙하던 거사였다.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의 제자인 이고(李翱)는 스승과 반대로 불교에 의지한 사상을 보였다. 한유는 "나의 도가 시되고, 이고 또한 도망 가버렸다"고 탄탄했다.

양숙 거사는 태자시독(太子侍讀)과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의 고관을 지냈다. 거사의 불연(佛緣)은 어릴 적 전란으로 강남에 피난했을 때 불교를 접하며 시작됐다. 당시 강남에는 천태종이 활발히 활동했더라 거사는 형제담연(南溪湛然)에게 불교를 사사하며, 천태교학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0에 따르면, "일찍이 형제 대사에 천태의 도를 배워 심요(心要)를 얻었다. <지관>의 문(文義)을 널리 전하고 보는 사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6권으로 줄였다. 또한 <통례(統例)> 찬술 등을 통해 <지관>은 세상을 구하고 도를



그림 · 김홍인

성품을 따름(率性)은 도(道)라 하고, 도를 닦음이 가르침(率性)이라 했다. 즉 인성(人性)의 본원이 천명이 있는 것이요, 그 성품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화시켜 도를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품을 따라 행함(率性而行)'을 가리켜 '자성명(自誠明)'이라 하고, '도를 닦고 교화함(修道而教)'을 '자명성(自明性)'이라 했다.

이를 <중용>에서는 '성(誠)이란 하늘(天)의 도이고, 성에 이르려는 것(誠之)은 사람의 도다. 성이란 힘쓰지 않고도 꼭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어지니, 도와 하나가 됨이 성인이다. 성에 이르려는 것은 선(善)을 택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중용>의 사상과 천태 지관을 결합시키려 했던 것이 양숙 거사의 의도였다. 거사가 말한 '지관이란 실재를 회복함'은 바로 '자명성'과 '성에 이룸'을 통하여 '천명'의 '성품'에 도달하려는 유가의 사상을 포괄한다. 거사는 '움직임을 멈추게 함'과 '흔들림을 비춤'의 지관을 통해 명정분성을 회복하는 '복성명정(復性明靜)'의 이론을 선보였다. 당연히 이런 사상의 밑바탕에는 분명하게 '일념무명법성심(一念無明法性心)'의 천태학이 작용했다.

양숙 거사는 <통례>에서 또한 "오직 하나의 성품(一性)이 있을 뿐으로, 얻으면 깨달음이고, 잃으면 미혹함이다. 오직 하나의 이치(一理)가 있을 뿐으로, 어리석으면 범부이고, 깨달으면 성인이다. (중략) 이치(理)는 본(本)을 이르는 것이고, 자취(迹)는 말(末)을 이른다. 본이란 성인(聖人)이 도달하는 경지이고, 말이란 성인이 보인 가르침이다. 본으로 자취를 드러내니, 바로 크고[大] 작음[小]이 되고, 통함[通]과 다름[別]이 되며, 돈(頓)과 점(漸)이 되고, 드러남[顯]과 숨김[隱]이 되고, 방편[權]과 실제[實]가 된다. 자취를 좇아 본으로 돌아오면 바로 하나가 되고, 큼이 되며, 원(圓)이 되고, 실(實)이 되며, 무주(無住)가 되고, 중(中)이 되며, 묘(妙)가 되고, 제일의(第一義)가 된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깨달음과 미혹, 범부와 성인, 이치와 자취, 본과 말 등은 모두 '하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일심이론(一心二門)'을 연상시킨다.

거사의 '일성(一性)'은 <기신론>의 '일심(一心)'과 상당한 개념이며, 논리의 전개 또한 유사하다. 거사는 일심이론의 논리로서 불교와 유가의 심성론을 더욱 분명하게 결합시켰다.

양숙 거사가 불교와 유가의 심성론을 결합시킨 것에 대해 찬영(贊寧)은 <송고승전> 형제담연전에서 "시경(詩經)에 '까치가 동지 지으면 비둘기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말은 양공(양숙)이 불교의 이교(異曲)에 깊이 들어왔음을 이르는 말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양숙 거사의 심성론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를 결합한 '복성명정(復性明靜)'은 보다 발전돼 이고 거사의 '복성설(復性說)'로 이어진다.

■ 김진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중용' 사상과 천태 지관 결합, 불·유 회통 앞장 피난지 강남서 불교 접해... '고문운동'에 큰 영향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의 사상을 결합시킨 거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다. 거사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양숙(梁肅), 이고(李翱), 류종원(柳宗元), 류우석(劉禹錫) 등 유가에 능통한 학자들로서, 당대(唐代) 거사불교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양숙(753-793)은 자(字)가 경지(敬之)이고, 안정(安定: 현제 甘肅省 涇川)사람이다. 유학자로서 유명하고, 특히 당대에 일어난 '고문운동(古文運動)'의 직접적 동인의 제공자였다. '고문운동'이란 육조(六朝)시대 화려하고 형식적인 '변려문'에 대해 자유로운 문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유(韓愈)·유종원 등이 주도한 운동이다.

<구당서(舊唐書)> 한유의 전기에 따르면, 양숙 거사의 학문이 뛰어나 유림(儒林)에서 중시하여 한유 등의 무리가 거사와 어울렸으며, '고문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당척언(唐摭言)>에 의하면 고문운동을 주도했던 한유 등이 3년 동안 양숙 거사에게 지도받았다는 사실은, 한유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문운동'이 양숙 거사로부터 비롯

하는 책이라 했다. 다시 대사를 위해 <전론(傳論)>을 찬술해 교를 전하는 대통(大統)을 논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관>은 바로 천태지의 대사의 <마하지관>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사는 그를 6권의 <천태지관>으로 줄여 출판했다. 송대 천태종 승려 자운존식(慈雲遵式)은 <천태지관>이 이론적 '관(觀)'에 관중해, 선수행 실천인 '지(止)'가 소략했음을 지적하길, "문장은 비록 간결하고 핵심적이나, 수행의 모습(修相)이 결여됐다"고 표현했다.

<통례>는 거사의 <천태지관통례(天台止觀統例)>를 가리킨다. 이 책은 집적적으로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가 회통을 논했다. <전론>은 <수선도량비명(修禪道場碑銘)>으로 거사는 천태 전교(傳敎) 계통을 서술했다. 또한 담연의 재가제자로서 <형제대사비(佛溪大師碑)>도 찬술했다.

양숙 거사의 동문인 어사(御史) 최공(崔恭)은 <양숙문집> 서문에서 "뿌리로 돌아가 명을 회복함(歸根復命)이 일(一)이 관지(一以貫之)해 <심인명(心印銘)>을 찬술했고, 일승(一乘)에 머물러 법제(法體)를 밝혀 <삼매화찬(三如來講讚)>을 지었다. 법요(法要)와

권실(權實)을 알아 <천태선림사비>를 지었고, 가르침의 본원에 통달하고 경지(敬智)를 써서 <형제대사비>를 지었다. 커다란 가르침의 말미암고 불일(佛日)의 미망(未忘)이 다해 이에 이르렀다"고 거사를 평했다. 이외에 거사의 작품은 <천태법문의(天台法門議)> <유마경략서(維摩經略疏序)> <열반경소석문(涅槃經疏釋文)> 등 수십 편에 달한다.

<천태지관통례>는 양숙 거사의 불교, 즉 천태의 심성론을 유가와 결합시켰다. <통례>의 첫 부분에서 거사는 "지관이란 무엇을 함인가? 만법의 이치를 이끌어 실제(實際)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실제란 무엇인가? 성품(性)의 근본(本)이다. 물(物)이 회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혼미함(昏)과 움직임(動)이 부리

기 때문에 그렇다. '흔들림을 비춤(照昏)'을 '밝힘(明)'이라 하고, '움직임을 멈추게 함(駐動)'을 '고요함(靜)'이라 한다. '명'과 '정'은 지관(止觀)의 체(體)다. 지관이라는 원인이 있어 지정(智定)이라는 결과가 있다. (중략) 성인(聖人)은 미혹함이 가득해 뜻을 상하게 하고, 움직임이 가득해 방향을 잃음을 보아 그치게 하고[止], 그를 관(觀)하게 함이다. '고요함(靜)'으로 그를 '밝힘(明)'이니 그 움직임을 능히 고요하게 하고[靜], 고요함은 능히 밝힘(明)이다"라고 말했다.

양숙 거사가 용어만으로도 불교와 유가를 결합시키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설명을 하자면, 유가의 <중용(中庸)>에 "천명(天命)은 성품(性)을 이룸이요,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서초구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서울 영등포구
노해용	1972년생	173	고졸	CEO	경기도 성남시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미천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직	서울 서초구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서초구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경기고양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시흥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전주 여주
최정호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대덕구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이천
정화선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북예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인천 천안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서울 구로구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서울 구로구
이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강원대백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경기안양
김종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강동구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경기부천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영등포구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영등포구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유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부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변희선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부천
김정영	1970년생	163	대졸	회사원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회사원	고양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서초구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서구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회사원	서울 광주시
이규만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서울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광주시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전주시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서구
민익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서구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서초구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정영준	1959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남 당진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 고양시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 서구
박준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대전 서구
최용우	1962년생	164	대졸	자영업	충남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 고양시
김진욱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옥천군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충북 옥천군
서중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기 고양시
박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견공사	강원도 강릉시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원	교육직	경기 고양시
박대식	1974년생	171	대학원	영업	충남 당진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서구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박선우	1974년생	175	대학원	회사원	인천 천안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사	경기 고양시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서구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자영업	충북 옥천군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송중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서초구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훈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서초구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옥천군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경기 고양시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서구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서구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대전 서구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원	충남 천안
박대원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남 천안
박병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남 천안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충남 천안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남 천안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남 천안
이종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남 천안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충남 천안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남 천안
박진봉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충남 천안
박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충남 천안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조리사	충남 천안
이종호	1978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남 천안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충남 천안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충남 천안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남 천안
정선도	1964년생	158	대학교	회사원	충남 천안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남 천안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도공사	충남 천안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금도공사	충남 천안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